



3면

전북 주도 에너지 전환 제안

전주매일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음 11월 3일) 제38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태권도, 흥익인간 이념 실천하는 대표 무형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본격 '도전장'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 등 5개 전승주체 국가유산청 주관 차기 등재 공모 공동 신청 도, 신청서 작성 등 행정 지원으로 뒷받침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해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를 신청할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로, 전승주체들이 해당 유산의 역사성, 전승 체계, 공동체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계 기관 간 협

력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과 공동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등재가 성사되면 태권도는 경기 종목에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국제적 위상이 격상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맨손 무예로, 기본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로 구성된 기술 체계를 통해 심신합일을 추구한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213개국 국가협회에서 활발히 수련되고 있으며, 국기원 단층 취득자만

1,200만 명을 넘어선다. 도장에서 사범과 수련생 간 전통적 사제관계를 기반으로, 초·중·고 체육 수업과 대학 태권도학과를 통한 정규 교육, 지역사회 체험 교실과 국제 대회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전승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원형성과 역사성에 관한 학술 연구가 축적돼 이번 도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등재 신청서에는 태권도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담겼다. 신체 단련과 정신 수양을 아우르는 수련 방식은 보건과 교육 분야에 기여하고, 성별·연령·장애를 초월한 포용적 참여 구조는 성평등과 사회통합 가치를 구현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난민 선수 출전 기회 보장, 태권도 평화봉사단의 국제 파견, 한국국제협력단과 국기원의 개발도상국 보급사업 등도 평화구축 기여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태권도는 흥익인간 이념을 실천하는 대표적 무형유산"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태권도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8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동의 특별한 내일, 전북이 만듭니다'

제18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도청서 개최 도내 15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500여명 참여 시설 아동들의 창의력·자신감·성취감 등 증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15개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를 개최했다.

'희망나무 사랑예술제'는 아동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연말에 전북아동복지협회(협회장 양향환)가 주관이 돼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요양원을 비롯한 15개 시설 아동들이 합창, 댄스,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무대 위에서 펼쳤다. 공연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관객의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와 모범 아동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과 도교육감 표창, 전북아동복지협회 감사패가 수여되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과 성실히 생활한 아동들을 격려했다.

전북자치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보호·돌봄 정책과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아동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으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아이들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북도가 아동들의 특별한 내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I시대 바람직한 미래도시 조성 방향 모색

전북연구원, 'AI 기본사회 컨퍼런스' 개최... 기본사회연구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

AI가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아, 'AI시대 바람직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도시 조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성화)은 기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주최, 전북자치도 후원으로 지난 19일, 전주 왕의지 밀에서 AI기본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두 개 분과로 나눠 다양한 분야별 논의가 진행됐다.

1분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AI시대 '농어촌기본소득'과 '자치분권국가' 그리고 '고용정책' 등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고용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AI시대 사회안전망과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2분과에서는 '지역사회와 돌봄정책'을 주제로 AI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돌봄사회의 안전한 이행'과 '생명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4세선과 5세선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과 돌봄인력 감소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사회정책과 돌봄정책의 방향을 지역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내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도내 3곳 선정

도, 장수·임실·부안 등... 국비 총 13억3000만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장수·임실·부안 등 도내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총

13억3,000만원(국비)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장수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내 산림생태축 및 멸종위기종 세뿔투구꽃 서식지 복원

△임실 대정저수지 가시연꽃 자생지 보전·복원 △부안 건선계 수생태계 복원 등 3곳이다.

3곳 모두 내년 사업 완료로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활용해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제도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전액 국비 사업이다. /이만호 기자

농·심·전·심
농민의 마음, 전주농협의 마음

대한민국 최초 농사연금 지급
대한민국 최초 농민훈장 수여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전주농협